



학부모 안내장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우리 6학년 아이들은 점점 더 활기를 되찾고 있고, 6학년만의 멋진 공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6월 6학년의 두 번째 프로젝트 수업으로 '모여봐요, 경제의 숲'에 대하여 설명 및 부락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모여봐요, 경제의 숲'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어른도 쉽지 않은 경제의 개념을 딱딱한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아이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경제활동에 대하여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며, 특히 삶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워야겠다는 의지를 갖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질적인 체험, 나의 삶과 연관된 '경제'라는 것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마을 활동을 통해 교실 속 마을에서 직업을 갖고 마을 화폐를 주고 받으며 경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경험할 모의 사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의 숲 준비 단계인 '준비의 숲'
-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의 숲'
-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 의 숲'
- 공정한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숲'

마을활동은 주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마을활동에서 일어난 일을 재료로 경제 수업을 합니다. 또한 직업활동을 하며 학년 초반에 친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부탁드리는 말씀

1. 마을 활동은 기본적으로 즐겁고 재미있지만, 간혹 학생들이 부정적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걱정하거나 파산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문제점(빈부격차, 과열경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 학생이 자신과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경험만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모의 사회에서 겪는 실패는 성공을 위한 실패입니다.
2. 마을 활동에 쓰이는 기본적인 재화는 마을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로부터 기부받은 물품, 그리고 학급예산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자유의 숲'부터 학생들의 개인사업재화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어줄 것입니다. 집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오거나, 자기 용돈으로 과자를 사거나, 집에서 쓰지 않은 물건을 교실로 가져가 팔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이런 활동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간혹 학생들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할 수 있으나 무리해서 비싼 물건을 구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가져와 팔지 않더라도 도매(선생님물품)를 통해 팔거나 물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의 '공정의 숲'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은지, 마을 활동 안에서 그 직업 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